

# 한인신문



한인신문 FACEBOOK QR코드

취재/광고: +7 707 120 1234

운영/배송: +7 747 674 5800

haninshinmun@hotmail.com

2021년 8월 19일

NO. 65[1094]

Ханин Синмун • Еженедельная газета

19 августа 2021Г.

## 주요연락처

대사관 (비자, 여권, 공증) +7(717)257-2100  
(사건, 사고) +7(705)757-9922

알마티 총영사관 (비자, 여권, 공증) +7(727)291-0490  
(사건, 사고) +7(777)705-6634

한인회사사무처 +7(747)674-5800  
지상사협회 +7(701)880-8600  
중소기업연합 +7(705)900-8662  
민주평통 +7(701)755-9759

구급차 03, 103

범죄/화재신고 (알마티) 112  
(아스타나) 101

가스/전기/상하수도 104, 109  
알마티공항 +7 727 270 3333  
아스타나공항 +7(717)270-2999

아스타나 문화원 +7(717)290-1113~5  
한국석유공사 (아스타나) +7(717)279-0429  
(알마티) +7(727)311-0378~9

한국교육원 +7(727)392-9120,3  
코트라(알마티) +7(727)222-323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727)274-2500  
보건산업진흥원 +7(727)228-2301  
관광공사(알마티) +7(727)344-0972

알마티 공항에서 도움 필요할 때 +7(701)731-4802



## 항공편 안내

### • 아시아나 항공

매주 목요일(알마티 출발 기준)

\* 알마티 출발은 오전 09:25 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에어 아스타나

매주 월, 수(주2회)

\*수요일 항공편은 15일부터 운항/7월 말까지만 잠정 운행 예정

## 알마티, 세계 133개 도시 중 생활비 저렴한 도시 129위 차지

생활 물가에 관한 세계 도시 순위에서 카자흐스탄의 남부 수도인 알마티가 133개 중 129위를 차지했다.

Energyprom.kz 분석가들은 “알마티는 사실상 ‘The Economist’ 분석 자료에 언급된 가장 저렴한 대도시 중 하나이다. 도시 지수는 33%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가 100%인 도시는 뉴욕이다. 카자흐스탄의 기준으로 따지면 알마티가 과연 저렴한 도시로 여겨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전 세계 133개 도시 내 140개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비교하였으며, 식품,

주류, 유틸리티, 담배, 의류, 개인 위생품, 주택 임대, 건강 관리 비용, 스포츠, 여가, 교통 등 여러 부문이 고려된다.

러한 조사 결과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해외 기업이 직원을 파견할 때 적절한 보상 조치를 정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는 중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로는 파리, 취리히, 홍콩이 손꼽혔다. 이와 반대로 가장 저렴한 도시 순위에는 다마스쿠와 타슈켄트가 언급되었다.

알마티의 시세와 카자흐스탄 평균 시세를 비교하면, 알마티의 생활 물가는 충분히 비싼

편에 속한다.

생활품의 경우 19개 중 12개가 알마티에서는 국내 평균 가격보다 비싸며, 그 중 8개는 10% 이상 가격 차이가 난다.

전국 평균과 가장 큰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밀가루로 29.7%를 기록하였으며, 달걀 역시 38.4%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알마티 시민들은 카자흐스탄 평균 보다 눈에 띄게 비싼 비용을 유틸리티에 지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마티 시민들이 지불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은 전국 평균보다 2배 비싸며, 온수와 주택 유지비는 1.5배, 전기비는

1/4배 비싸다.

카자흐스탄 국내 평균보다 저렴한 부문은 냉수와 하수도 비용뿐이다.

또한, 알마티 시민들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유치원(1.5배), 미용실(1.5배 이상), 사진 서비스(1/3배 이상), 유료 의사 진찰(1/3)에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알마티는 카자흐스탄에서 전자 제품, 개인 위생용품이 비싼 편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의약품 대부분은 전국 평균보다 알마티 시세가 더 저렴하다.

/자론



### SAMSUNG

## Galaxy S21 Series

Деклар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ии информации: RU С-08 АММ 8.1805/200  
Деклар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ии информации: 03.02.2020 ж.

# 카자흐 현대차 조립공장에 투싼 생산 라인 신설... 리튬·니켈 등 자원 협력 강화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이 자동차와 자원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준공한 알마티 현대차 조립공장에 투싼 라인을 신설하고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에서 리튬, 니켈 등 희귀 금속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롯데호텔에서 양측 정부와 기업인 각각 22명이 참석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방한 중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국민 방문을 계기로 양측은 한-카자흐스탄 민간 경제 협력 채널 구축, 자동차 산업 협력 강화, 합금철 공장 등 플랜트 협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니켈·코발트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자원 협력 등 2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준공해 연간 3만대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알마티 현대차 조립공장은 투싼 모델 라인 신설 등 생산 라인을 확대할 계

획이다. 지난해 현대 자동차는 브랜드별 현지 생산량과 신차 기준 판매량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또 모델별 판매량 상위 10개 모델에 현대·기아 차량 모델이 무려 4종이 오르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어 이번 투싼 모델 라인 신설을 통해 카자흐스탄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차의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대카자흐스탄 자동차 부품 수출액도 4959만 달러로 전년(2816만 달러) 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한국산 자동차가 입지를 굳히고 있다.

양 측은 희귀 금속 등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일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내놓고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 △이차전지, 풍력·태양광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전략'과도 맞닿아 있는데 이차전지에 필수인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희귀 금속이 카자흐스탄에 풍부하다는 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카자흐스탄은 자원 개발 환경도 적당하단 평



가다. 광구를 깊이 파지 않아도 돼 생산비가 적게 들고 우리 우수한 제련기술이 더해지면 제3국 판매도 가능해 물류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의 수석대표로서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개발부 장관과 함께 올해 중 제10차 경

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경제 협력 프로그램의 이행을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며 "양국이 2019년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Fresh Wind)

을 토대로 산업·자원·에너지, 과학·기술, 보건·의료, 교통인프라 등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 실질적 경제협력 성과를 창출해왔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 문대통령 "고마운 나라", 카자흐 대통령 "韓 선도국가 인정"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방문 중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17일 개최된 정상회담을 '중요한 이정표', '역사의 날'이라고 각각 평가했다.

두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양국의 우정과 신뢰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80년 전 고려인 동포들의 이주를 따뜻하게 품어 준 고마운 나라"라며 "오늘날 10만여명의 고려인 동포가 양국 관계를 더 가깝게 이어주

는 가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37년 당시 소련이 극동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를 결정하면서 17만2천명에 달하는 이들은 카자흐스탄에 정착했고, 카자흐스탄인들은 이런 고려인들의 정착을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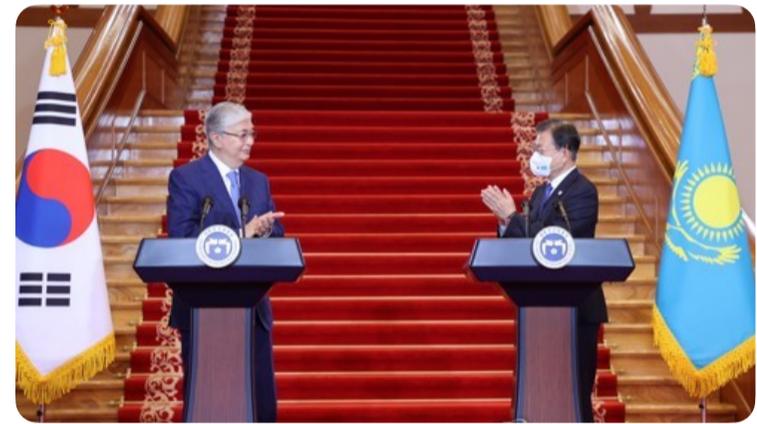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 잠든 우리 애국지사들의 고국 봉환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다"며 2019년 계봉우·황운정 애국지사에 이은 이번 흥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크고 뜻깊은 선물

로, 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 양국 국민의 우정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양국이 함께 행복하고 번영하는데 오늘 정상회담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9년 두 정상이 채택한 경제협력사업 프로그램 '프레시 윈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 강화 등 이날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열거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역사적 사건들이 양국 국민들 간 협력을 강화시켰다"며 카자흐스탄에 안장된 애국지사 유해의 한국 봉환에 대해 "상호 신뢰·지원의 표시"라



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 '핵심적 파트너'라고 표현한 데 이어 "한국과의 협력을 더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은 첨단기술,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선도국가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자흐스탄은 좋은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 15년간 삼성, 롯데, 포스

코 등이 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소개하면서 "이를 더 활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 대기업들의 투자에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또 부산에 카자흐스탄 총영사관을 개설하기로 한 점 등을 소개하면서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해 중요한 역사의 날"이라며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했다.

/연합뉴스

### 한국 K-방역 System

세균, 곰팡이, 녹조, 코로나-19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방역(친환경 살균, 소독, 탈취)

**소독제: 이산화염소수 (ClO2)**  
차아염소 (락스) 대비 2.5 배 이상 강한 살균력  
차아염소 (락스) 대비 5배 이상의 소독력  
친환경 산소계 소독제(식약청 사용권고 소독제)

**BURE GOOD FOG 초미립자 무선 분무기/강풍 청소기**  
(8m ~10m 분사력으로 빠른 방역 소독)

**BURE LTE 초미립자 유선 분무기/강풍청소기**  
(8m ~10m 분사력으로 빠른 방역 소독)

방역 문의 및 판매, 임대: +7 776 697 88 00 (한국어); +7 776 702 33 00; +7 727 269 54 47 (카자흐어/러시아어)

**셀프 발열체크**

경제적 부담 해소  
초고가 열화상 카메라 대체  
오차범위 ±0.2°C

**인건비 부담 해소**  
사람이 체크해야 하는 기존 체온계의 불편함 해소

**강력한 전신 소독**  
조음파 미세 안개분사  
10EA 초음파 진동단자

**안심 살균 소독(ClO2)**  
호흡기에도 안전한 친환경 살균소독수 채택  
FDA, KPDA 등에서 안정성 검증

**전신 소독기**

**1차 방역시스템**

고체온자 출입금지  
체온측정시 고발열자는 자동으로 출입을 금지  
감염 확산 차단

**경고등 및 부저음**  
모니터 스크린 통해 경고등 및 부저음이 울리게 되어 통제 가능

**강력한 산화력**  
방문자의 몸에 묻어 있을 오염원을 출입전에 제거

**이동의 편리성**  
초음파기 하단 바퀴부착  
간편하게 이동 가능

**2차 방역시스템**

**유니온 덴탈 클리닉**  
**«UNION DENTAL CLINIC»**

- 최신 한국 치과 장비 및 진료 시스템
- 최신 CT 및 DIGITAL 장비보유
- 서울 참좋은 치과 협진 병원

(코로나 기간 한국 의사 부재시 실시간 영상 진료)

+7 777 132 17 42 (러시아어)  
+7 727 983 43 53 (한국어)

www.uniondental.kz

주소 아바야 150/230 3블록 1층

아바야  
Gaukhar Tas Building  
Roziybekov 거리

# 러시아,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백신 4가지 개발 중



러시아 면역학자이자 연구 회사인 'KEG'의 대표, 의학 박사인 니콜라이 크류츠코프가 러시아가 진행 중인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4개의 새로운 백신이 내년 봄까지 등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백신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백신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크류츠코프 박사는 코

로나19 바이러스의 '델타'가 지속적으로 변이 형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백신이 반응하는 징후 대부분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러시아 보건부 마하일 무라

쉬코 장관은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83%에 달하는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백신은 코로나19 중증을 95% 이상 예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론

## 카작에서 국가 프로젝트 개발 방법론 승인

카자흐스탄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 개발 방법론을 승인했다. 국가경제부와 전략 계획 및 개혁성이 공동으로 작성한 명령서에는 "국가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방법론을 승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명령서에 따르면 국가 프로젝트는 여러 행사 및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가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국가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국가 프로젝트의 특징은 국가 프로젝트의 실행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 직접적

으로 통제하지 않는 요인에 대한 결과 의전도가 낮다는 것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국가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 계획 시스템의 문서와 방향, 과제, 결과 지표 서류를 복사하는 것 방향, 과제, 결과 지표 및 프로젝트 실행 계획 작성시 모호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 앞서 언급된 문서들과 관련된 결과 지표의 의미를 과소 평가하는 것 국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자금은 정부 및 지방 예산,

정부 채권, 비정부 채권, 해외 직접 투자, 국내 투자, 국제 금융 기관의 원조 혹은 해외 정부 원조, 제2 수준 은행의 대출 등 카자흐스탄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지 않은 자금 출처이다. 자금의 규모는 사회·경제적 발전 전망, 정부 및 지방 예산 계획, 국제 협약 및 서류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다. 국가 프로젝트 지원은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국가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 규모 증액이 1차적으로 계획되었던 금액보다 5% 이상이면 최고위원회 결정을 필요로 한다. 국가 프로젝트 실행은 다음

과 같은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진행된다.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관련 국가 기관의 업무 내에서 국가 프로젝트 실행 계획 이행 국가 프로젝트 실행에 참여하는 국가 기관의 개발 계획과 주, 도시, 수도의 개발 계획 실행, 국가 자산 및 국영 기업 등에 대한 개발 계획 이행 지난 1월 15일, 카자흐스탄 제7대 의회 1차 회의에서 카숨-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부에 6개월 내에 국가 프로그램을 국가 프로젝트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카즈태그

### 한인신문 후원사 목록

삼성	1면
한국K-방역 시스템	2면
UNION DENTAL CLINIC	2면
아시아나항공	3면
신한은행	4면
AK Group	5면
유니온 파트너스	6면
KYL LOGISTICS	8면
루벤스 여행사	8면
한국 개나리 벽지	11면
골든투어 카자흐스탄	13면
이모네 식당	14면
두레	14면
세븐마트	14면
다사랑/다사랑 마트	14면
늘푸른건강원	14면
GS Oil	14면
NAVIEN 보일러	14면
한솔한의원	14면
CIS Group	14면
중앙아시아허브교회	14면
알마티 한인교회	14면
방울토마토 미용실	15면
알마티 좋은 부동산	15면
HCES GLOBAL LLP	15면
Hannah E-Children Center	15면
명가식당/마트/게스트 하우스	16면
애플렌터카	16면
마시소강남카페	16면
드림(비즈니스클럽)	16면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한인 신문을  
 후원해주시는 후원사(광고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고 개선해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카이트렉스 선정  
13년 연속 5스타항공사  
(2007~현재)



## 아름다운 여정 아시아나와 함께 하세요!

마음을 다하는 정성 어린 서비스로  
여러분의 여행을 아름답게 만들어 드립니다.

예약 및 문의 • +7-727-356-3235 • flyasiana.com

A STAR ALLIANCE MEMBER



# 카자흐스탄에 대통령 인재 후보자를 위한 특별 포털 개설

‘국가 공무원 인사 관리 센터’ 캔제벡 사나바예프 센터장이 “대통령 인재 모집을 위한 후보 등록용 포털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사나바예프 센터장은 “대통령의 청년 인재” 프로젝트를 통해 특별한 인터넷 포털이 만들어졌다. 이 포털은 내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포털은 메인 페이지, 프로젝트에 대한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갤러리, 모집 결과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해당 포털에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도 가능하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누구든 모집 진행에 대한 총칙, 단계, 기한에 대한 설명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로젝트에 대한 페이지에서는 모집 기준, 단계별 절차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사나바예프 센터장은 “모든 희망자들은 모집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각 단계별로 후보자 성으로 조회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는 모든 모집 절차의 공개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이다. 우리는 후보자들에게 수 많은 질문 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걸 잘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은 중요하다. 누구든 마이페이지에서 문의 내용을 남길 수 있다. 이러한 문의 내용은 전담 컨설턴트에게 전송된다. 이러한 지원은 근무 시간에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진행 중에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포털 사용을 위해서는 각 후보자는 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 후보자 등록을 위해 전자 메일 뿐만 아니라 전자 서명도 필요하다. 전자 서명은 원격으로도 받을 수 있다. 즉, 전자 서명 사용은 해외 등 먼 곳에 거주 중인 참가자들에게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다.

다만, 사전에 전자 서명을 받는 것을 권고한다. 이미 전자 서명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 가능한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인증서의 등록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등록 후 후보자는 사용 계약서를 읽고 서명해야 한다.

모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실수 및 위조를 방지하고 보다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 정보는 자동으로 기재된다. 또한 일부 칸은 직접 스스로 입력해



야 하며, 몇몇 서류도 업로드해야 한다. 업로드 파일의 용량은 10메가바이트를 넘으면 안되며, JPEG 형태의 파일로 저장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모든 서류는 스캔되어야 하며, 읽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가능

하다면 사진 촬영이 아닌 스캔된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이러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후보자는 모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신청서의 정보를 변경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주의깊게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재하거나 정보를 위조한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후보자는 모든 모집 단계에서 제외된다.

/카즈인폼

## 무디스, 카자흐스탄 신용 등급 조정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카자흐스탄 국가신용등급을 ‘Baa3’에서 ‘Baa2’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상향 조정은 카자흐스탄의 국가 재정 및 신용 프로필이 ‘Baa2’ 등급과 일치하는 안정성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 요인은 국가 자산 사용의 규모 및 효율성, 국가부채의 낮은 수준, 거시 경제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정부 조치의 효율성이다.

무디스는 2020년 카자흐스탄

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제한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재정 정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카자흐스탄 경제성장률을 2021년에는 3.5~4%, 2022년에는 4~4.5% 수준으로 예측했다.

무디스의 평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진행 중인 제도적, 경제적 개혁은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강화하고 카자흐스탄의 투자 가치를 향상시킨다.

카자흐스탄은 144개 국가 중 신용등급이 향상된 5개국에 포함된다.

/자콘

## 카자흐스탄 국세청, 약 34,000개 기업 고위험군으로 분류



카자흐스탄 재무부 산하 국가소득위원회는 “약 3.4만개의 기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고 발표했다.

국가소득위원회는 “현재 카자흐스탄에 등록된 170만개의 개인 사업체, 유한책임회사 중 49% 가량이 평균 수준 이상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2%는 고위험군 수준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3.4만개의 카자흐스탄 기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기업 카테고리는 카자흐스탄 국가소득위원회 사이트에 발표되며, 6개월마다 한 번씩 즉, 1월 1일과 7월 1일에 업데이트된다. 카테고리 분류 결과에 따라 일부 기업은 국가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기도 한다.

위험 수준 분류시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조세 부담, 직원 규모의 정확한 반영, 등록 장소가 명확하지 않고 비활성화된 기업과의 거래 여부 등이다.

또한 개인 사업가, 유한책임회사의 전자 인보이스 발행, 온라인 거래 등록기 등 기타 사항도 고려된다.

이러한 위험 수준을 평가한 후 관련 정보는 납세자 사무실로 전달된다.

유한책임회사 ‘Stezhok’는 국가소득기관의 경고를 무시하면 2022년 1월 1일까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카자흐스탄투데이

**SHINHAN BANK**

**EXPERIENCE WORLD CLASS FINANCIAL SERVICE**

One Shinhan

# 수묵의 독백, 수묵화의 다채로움 선보이다!

-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수묵화 전시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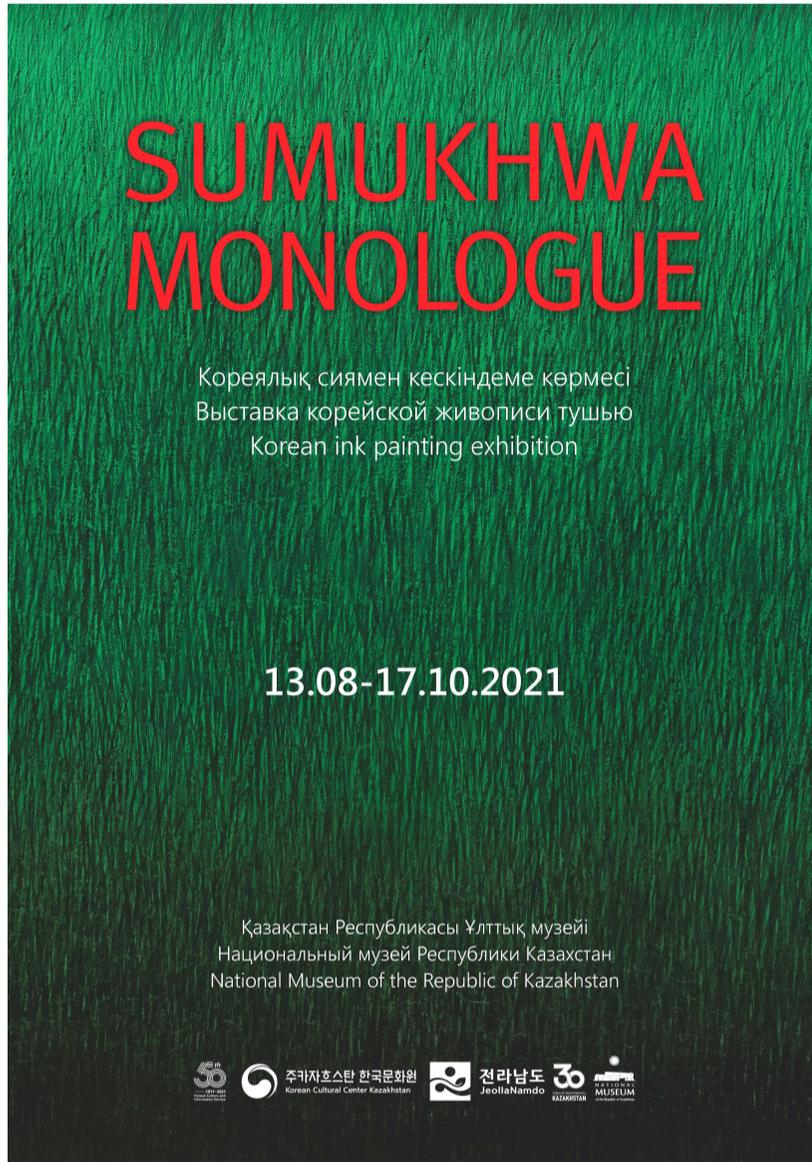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은 8월 13일 15:00시에 카자흐스탄 국립 박물관에서 <수묵의 독백>전시 개최식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개최식 후 10월 17일까지 약 2달간 개방되어 주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

이번 전시는 전남도청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동양화 작가 28인의 작품을 소개한다.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수묵화 전시는 먹의 농담을 통해 그리는 한국의 수묵화를 주재국민에게 소개하고 전통적인 수묵화 기법을 활용하여 현대적 요소를 담아낸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카자흐스탄의 독립 30주년 계기를 기념하여, 카자흐스탄 국립 박물관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작가만의 시각으로 자연의 풍경과 생명 소생 등을 담아낸 수묵화 작품을 통해, 수묵이라는 동양의 회화기법으로 관람객의 시선을 모으고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최식은 주재국의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주재국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및 외교단 30명이 제한적으로 입장하여 진행되었다. 개최식에 참석한 문화예술가는“수묵화 작품을 태어나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먹의 번짐 기법이 인상 깊었고 다양한 영감을 주었다. 이번 전시로 한국의 수묵화와 한국 미술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되서 기뻐다. 더불어 전시와 함께 진행된 한국 전통 부채만들기 체험으로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이 생겼으며, 앞으로 한국의 문화를 더 알아 갈 수 있는 문화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는“코로나로 인해 안타깝게 개최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되는 <수묵의 독백>전시를 통해 한국의 오랜 역사와 수려한 자연 속에서 독창적인 화풍으로 발전해온 수묵화를 선보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전시에서 한국 수묵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현대미술로서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재료와 수묵화 기법을 선보이는 회화들을 바탕으로 주재국 예술인과 주재국민에게 큰 관심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의 전통 미술을 알아가고 수묵화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이해관 원장은“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에 한국의 수묵화를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카자흐스탄에 선보이는 한국의 수묵화 전시를 주재국민들이 관람하고 한국 전통 미술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 수묵화 전시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 따뜻한 위로가 되고, 양국의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 한인회 & 교민 동정란

한인회 소식과 교민·기업들의 짧은 소식을 모아서 전합니다.(예:모임,부임/귀임,관혼상제 등)

하나. 신규 후원사(광고주) '알마티 부동산'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5면 광고를 참고해 주세요.

둘. 기존 후원사(광고주) 'Massiso 카페강남'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6면 광고를 참고해 주세요.

셋. 신규 후원사(광고주) [P&C international]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2면을 참고해 주세요.

넷. 신규 후원사(광고주) [UNION DENTAL CLINIC] 안내입니다. 본지 2면을 참고해 주세요.

다섯. 카자흐스탄 한인회에서는 긴급한 사항이나 행사 안내 등 교민 전체를 대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한국교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고 습니다. 아래 표시된 QR 코드를 어플로 스캔하거나, 통해 새로 열리는 창에서 채널 추가를 하시면 소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쌍방 대화 가 아닌 중요 공지 및 소식 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채널을 추가하셔도 단독방 처럼 수시로 올라오는 대화 알람으로 스트레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제13대 카자흐스탄 한인회

- 매월 둘째 주 수요일
- 회장: 강병구
- 수석부회장(사무처장 겸임): 박태상(+7 777 400 3199)
- 사무처 실장: 강우환(+7 747 674 5800)

### 카자흐스탄 지상사 협의회

- 회장: 박균열
- 총무: 김요셉(+7 701 880 8600)
- 이메일: yosep@shinhan.com

### 카자흐스탄 중소기업 연합회

- 회장: 김성태(+7 701 726 9730)
- 총무: 조주연(+7 705 900 8662)
- 이메일: chocho6652@naver.com

## Law Firm AK

Law Firm AK는 대한민국 법무법인 지평과 제휴하여 카자흐스탄 및 CIS국가에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소중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 기업 및 투자 법률 자문

- 법인(지점) 설립 및 청산
- 카자흐스탄 기업 법률실사 및 M&A
- 카자흐스탄 현지 노동법 자문
- 카자흐스탄 기업 법률 자문 등

/카자흐스탄 주재 변호사/ 양용호 변호사 • +7 701 537 0599  
김태영 변호사 • +7 775 386 4400

### 소송 대리

- 중재 및 소송 수행
- 보전처분 및 집행절차 대행
- 사설공매절차 대행
- 소송 코디네이션

## Tax&Accounting Firm AK Partners

AK Partners는 다년 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진출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회계 및 조세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건설면허, 취업허가, 비자 등 인허가 업무도 신속 정확하게 대행하고 있습니다.

### 회계 및 세무 자문

- 회계 기장 자문 및 대행
- 세무 신고 자문 및 대행
- 회계 세무 실사
- 조세 전략 자문

/카자흐스탄 주재 컨설턴트/ 배상현 대표이사 • +7 777 705 8822  
서유진 과장 • +7 701 973 5554

### 인허가 자문 및 대행

- 건설면허 취득 자문 및 대행
- 취업허가 취득 대행
- 비자 및 초청장 발급 업무 대행 등



# 알마티 동산병원의 마스크 기증과 카자흐국립대와 의 산학협력 구축

지난 8월 초에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 한국학과에는 뜻밖의 반가운 손님들의 방문과 '선물' 전달식이 있었다. 알마티에서 의료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알마티 동산병원" 관계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로, 반가운 방문객들에 의해 한국학과를 포함한 동방학부 구성원들을 위해 학과에 KF94 마스크(1000개)가 기증되었다.

여름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리고, 여기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품질이 좋은 한국산 마스크의 제공은 한국학과를 포함한 학부 구성원들 모두에게 반가운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다가올 가을 신학기의 수업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만약 오프라인으로 대면수업에 참가하는 경우 학생들에게는 기분좋은 선물이 되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이번에 귀한 선물을 기증해 준 "알마티 동산병원"은 한국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동산병원, 경주동산병원)의 구성원 중 하나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소속을 두고 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 역사는 1899년에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장인차(Dr.

Woodbrige O. Johnson, 1869-1951) 의료선교사에 의해 대구 달구벌에 세워진 "제증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증원은 장인차 선교사에 의해 약전골목 대구선교지 부 내 작은 초가집에서 시작되었는데, 대구·경북 지역에서 최초로 서양의학의 꽃을 피우는 것 외에 사회·문화·경제·교육 등 다방면에서 근대화를 이끄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이후 제증원, 즉 "동산기독교병원"(2대 병원장 시기부터 "동산기독교병원"으로 불림)은 1980년에 계명대학교와 통합되며 대학 내에 의과대학이 세워졌고, 1982년에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마침내 2019년에는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 1,041개 병상을 갖춘 지상 20층의 최첨단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건립되며 국내외에서 활발히 의료를 전파해 오고 있다.

한편 해외 의료선교의 일환으로 1995년에는 알마티에 "알마티 동산병원"이 설립되었는데, 주력 진료분야는 안과, 산부인과, 피부과, 신경과, 치과, 비뇨기과 등이다. 2020년 초에는 새롭게 시설을 정비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체계를 확보했으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전인적인 치유와 봉사를 목표로 알마티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명의 한국인사를 포함하여 한국인 8명과 카자흐인 의료진 및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1994년에 첫 문을 연 이래로 카자흐국립대 한국학과는 알마티 내 여러 한국 기업들과 다양한 형태로 산학협력 관계가 이어져 왔다. 금번 마스크로 시작된 "알마티 동산병원"과의 산학협력 관계 또한 한국학과와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다. 카자흐국립대 내에 의료센터가 있는 관계로 그동안 한국학과는 강남세브란스나 이대세브란스, 서울대병원 등의 카자흐스탄 의료봉사활동 과정에서 한국학과 학생들의 의료통역 자원 봉사활동을 지원하며 상호관계를 이어 온 바 있다.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처럼 "알마티 동산병원" 또한 기독교 정신과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에 입각하여 카자흐스탄 시민들의 건

강 및 보건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알마티 동산병원"측과의 우호적인 협력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한국학과를 대신하여 귀한 선물을 제공해준 "알마티 동산병원"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모쪼록 카자흐스탄 땅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의료기관으로 번영하기를 기원한다.

기사제공/이병조 교수 (카자흐국립대 한국학과)

## 카자흐스탄 최저 생계비, 지난해 대비 14% 가량 증가

2021년 7월 기준 카자흐스탄 최저 생계비는 38,400텡게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14.1% 증가했다.

Raking.kz 측은 지난 달보다 최저 생계비 수준은 0.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인플레이션 수준은 신기록을 갱신했다. 2016년 이후 처음으로 8.4%를 기록했다.

한 달 사이에 식료품 가격은 0.7% 상승하였으며, 비식료품 가격은 0.5%, 유료 서비스는 0.8% 올랐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최저 생계비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망기스타우주(州)로 44,000숨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국내 평균 최저 생계비보다 14.3% 높은 수준이다.

그 뒤를 이어 누르술탄(43,400

텡게)과 알마티(40,800텡게)로 국내 평균 최저 생계비보다 각각 12.8%와 6.2%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외에도 TOP 5에 속하는 지역은 동카자흐스탄주(39,600텡게)와 과블로다르주(39,300텡게)이다.

앞서 언급된 다섯 지역만 평균 최저 생계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 생계비를 기록한 지역은 서카자흐스탄주로 34,700텡게이며, 이는 평균보다 9.8% 낮은 수준이다. /자곤

**유니온 파트너스**  
www.unionp.kz

- /인허가 등록 업무/ 의약품·의료기구·의료장비
- /면허 발급 업무/ 의사면허·병원허가·전문인 면허
- /등록 업무/ 화장품·건강식품·해산물
- /영주권 취득·연장/

+7 747 811 8971(러) info@unionp.kz  
+7 701 218 0634(한) hmy600@hanmail.net  
#204, BC "Ambassador", Block-45, Line-22, Almaty  
\*잔도사바 - 로즈비끼예바\*

**어떤혜택**  
한인신문에 광고하면...

- 혜택. 하나**  
고객이 OK 할 때까지 고품질의 광고 제작
- 혜택. 둘**  
가장 많은 광고 유치로 인한 시너지 효과
- 혜택. 셋**  
한인신문에 광고하면 한인신문 페이스북에 신규 후원사(광고주)로 게재(2021년 2월 기준 그룹회원 2,300명)
- 혜택. 넷**  
신규 광고의 경우 2면 '교민동정란'에 소개

"어려운 시기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Daejeon is U

# 제19차 세계한상대회

THE 19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21. 10. 19(화) - 10. 21(목) 3일간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DCC)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과 그린뉴딜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Green New Deal for climate change response



- 기간 : 2021. 10. 19(화) ~ 21(목)
- 장소:대전컨벤션센터및ICC호텔
- 주관 : 재외동포재단, 대전광역시, 매일경제신문,MBN
- 후원 : 외교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관광공사
- 규모 : 총3,000명(해외 1,000여명, 국내 2,000여명)
- 프로그램 : 개.폐회식, 운영위원회, 한상 CEO 네트워킹, Young Business Leader & Hansang Forum, 기업전시회, 일대일비즈니스미팅, 세미나, 투자유치설명회,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현장면접 등
- 행사방식 : 오프라인 · 온라인 병행 하이브리드 방식
- 대회 기간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오프라인 참가인원 제한
- 주요 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및 한상과 지역 경제인의 네트워킹의 장 마련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들과 해외 한상과의 비즈니스연계를 위한 기업전시회 개최, 비즈니스 상담 및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시행
- 비즈니스 정보 공유를 위한 비즈니스 세미나, 투자유치 설명회, 주요 지원 정책 등 설명회 시행
- 금년도 주요 개선사항
- 기존 YBLF(만45세 이하)를 연령 제한 없는 Young Business Leader & Hansang Forum 확대 시행
- 영 비즈니스 리더포럼(45세 이하)을 YBLN, 신규 유력 한상, 리딩 CEO가 함께 참여하는 “Young Business Leader & Hansang Forum”으로 확대
- 재외공관, 국내외 경제단체, 리딩 CEO 등의 추천을 받아 거주국에서 성공했거나 주목 받고 있는 기업인 발굴



지면상 일부 내용만 게재되었습니다. 본 행사와 관련 전체 설명자료를 열람하기 원하시는 분은 위 QR코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www.hansang.net

| 주최 | 재외동포경제단체 | 주관 | 재외동포재단 | 대전광역시 | 매일경제 | MBN

### 교민 장터 코너 ... 구인 구직

- [중고 물품 판매\_0807]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서적, 가구등 살림 일체 정리 / 8월 2일(월)~7일(토)까지 / +7 705 552 7788
- [애플타운 임대\_0812] 면적 : 124 m<sup>2</sup> / 구성 : 방 2개, 거실 1개, 화장실 2개 / 임대비 : 협의 / 연락처 : +7 747 173 1215
- [프리랜서 모집\_0812] 나이, 경력, 재직자, 주부, 회화능력 조건없이 누구나 환영/개인정보 비밀보장/ 특히 개인시간 많고, 현지부동산 임대와 매매에 관심 있으신분 추천합니다/ 알마티부동산 +7 701 063 3933
- [팝니다\_골프 쿠폰\_0805] 누루따우(18홀) - 1개 30,000KZT / 연습볼 별도 / +7 701 711 4894(골든투어 / 진재정 사장)
- [구인\_0805] 여행사 SNS(인스타그램 등) 홍보직 파트타이머(월-금 14:00~17:00) / 현지인 및 경험자 우대 / 연락처: 투어엔골프 한주성 +7 778 363 9482 (What's App가능)/ 1249000@mail.ru
- [차량 임대\_0805] 벤츠 스프린터 18인승/ 기사포함 \_ 제네시스 G80/ 기사포함 / 공항 픽업 및 샌딩 가능/ 알마티 시내 및 인근 관광지 탐방 / 여행사 문의 환영 / 연락처: 투어엔골프 한주성/ +7 778 363 9482(What's App가능)
- [현지 직원 구함-MOTORTOOL\_0802] 일반 관리 및 영업직 / 한국어 가능 / 컴퓨터(오피스프로그램) 중급수준 / 나이, 성별제한 없음 / 이력서 제출 및 면접 / 연락처: +7 700 577 7138/ duk9172@gmail.com
- [장기 임차인 구함\_0802] 아티라우시 중심가에 한식당운영하실분 찾습니다. \*건물은 신 증축하였음 \*1층: Dining hall -127m<sup>2</sup>/ 부엌-92m<sup>2</sup>/ 입구및 남녀화장실-10.4m<sup>2</sup> \*2층: Barman Area-80m<sup>2</sup>/ Dining Area-139m<sup>2</sup>/ Open Terrace-18m<sup>2</sup> \*외국인 밀집지역 \*연락처: +7 701 712 9442 (김부장)

게재 내용은 한인회 사무처 +7 747 764 5800(카톡연결가능)로 연락주세요. 상업성이 있는 경우 유료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국가 경쟁력, 신용등급, 제조업... 韓, 30년만에 日 제쳤다

중앙일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광복절을 앞둔 12일 1990년 이후 한일 간 경제·경쟁력 격차 변화를 비교해 발표한 결과다.

우선 인프라 등을 분석해 국가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순위에 따르면 1995년 각각 26위와 4위였던 한국과 일본의 순위가 2020년 23위, 34위로 바뀌며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

S&P·무디스·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현재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일본보다 2단계

높다.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해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1인당 경상 국내총생산(GDP)도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2018년 한국(4만3001달러)이 일본(4만2725달러)을 추월했다.

제조업 경쟁력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앞질렀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에 따르면 1990년 한국과 일본의 순위는 각각 17위, 2위였지만 2018년에는 한국이 3위로 올라가고, 일본은 5위로 떨어졌다.

거시경제 지표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축소됐다. 1990년 한국과 일본의 명목 GDP 수준은 각각 17위, 2위였지만 2020년 한국은 10위를 차지하면서 3위로 떨어진 일본과 격차를 좁혔다.

한국 수출액도 2020년 기준 5130억 달러로 일본의 80%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명목 1인당 GDP 기준으로는 한국이 1990년에는 일본의 26%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79% 수준으로 따라잡았다.

대외부문 지표에서의 한국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한국의 1990년 기준 수출액은 일본의 24% 수

준이었으나 2020년 일본의 80%로 성장했다. 수입액도 일본의 31% 수준(1990년)에서 74%(2020년)로 늘었다.

다만 해외직접투자는 2020년 기준 한국 325억 달러, 일본이 1157억 달러로 3.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기초 기술 강국인 일본에 뒤졌다. 글로벌 연구·개발(R&D) 1000대 투자 기업 수에서 2020년 기준 일본은 한국보다 5배 이상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소재·부품 분야에서 한일 경

쟁력을 나타내는 한국의 소재·부품 대일(對日)적자 규모는 1994년 83억 달러에서 2020년 154억 달러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울러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경쟁력을 나타내는 노벨과학상 수상자도 한국은 전무했지만, 일본은 지난해까지 24명을 배출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해외직접투자액 등에서는 여전히 일본과의 격차가 크고, 기초과학 기술 분야 투자와 경쟁력에서는 뒤떨어진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장기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주변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다면 ‘이 증후군’이 원인?

친구, 연인, 동료 등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가면 증후군(imposter syndrome)’이 원인일 수 있다.

가면 증후군은 자신의 능력, 기량, 성과 등에 대해 스스로 의심을 품는 것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증후군이다.

대부분 일의 성취도가 높은 사람에게 나타나며 어떤 연령대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정신의학자인 라무시 파마르 박사에 따르면 가면 증후군은 낮

은 자존감과 연관이 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현재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하고 보다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과 호감을 사기 위한 가면을 쓸게 될 확률이 높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 걸치려하는데 신경 쓰기 때문에, 실제 자신의 모습과 남들이 보는 모습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 이로 인해 스스로가 사기꾼처럼 느껴지고, 진짜 모습이 들릴까봐 초조해 지기도 한다.

이는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진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상대의 거절이나 비판 등에 취약해진다.

또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는 상황으로도 이어진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점점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는 경향도 생긴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하루아침에 가면 증후군으로부터 벗어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자신의 장점과 특별한 점 등을 떠올리며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욱 강점으로 만드는데 힘쓰다보면 서서히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를 덮는 훈련을 하는 것도 가면 증후군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완화하는 인지행동치료 방법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도록 부채질하는 요인과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령 소셜미디어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스스로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다면 소셜미디어 사용을 당분간 중단하고 자신의 장점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 건강한 식사, 적당한 수면 등으로 자기 관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만약 이 같은 노력에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가면 증후군의 기저에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메디닷컴

**KYL LOGISTICS**

Bulk Cargo  
Container  
Air Cargo

(주)케이와이엘이  
2021년 1월 06일을 기하여  
“창립 1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광과 고난의 12년 세월을 지나  
지금 이렇게 서있게 해준 것은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의 덕분임을 알기에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루벤스 여행사** 아시아나 항공 판매 대리점

**항공권 판매**

**호텔 예약**

**누르따우 쿠폰판매**  
(최소 1장 구매가능)

**RUVENS CORPORATION** | 누르따우 비즈니스센터 2V 804호 / +7 727 311 1745, +7 701 786 2334(러,한)  
 almaty@ruvens-kz.com / www.ruvens.kz

# "죽으면 제 얘기 들어주실래요?" 성폭행 피해자의 호소

해군에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지 3개월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해군은 12일 경기 모 부대 간부 숙소에서 A중사(32)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A중사는 같은 부대 B상사로부터 지난 5월 부대 밖 음식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A중사의 거부 의사에도 B상사는 '손금을 봐주겠다'며 신체 접촉을 했고, A중사는 피해사실을 당일 부대 주임상사에게 알렸다. 하지만 A중사의 피해 사실은 3개월 뒤야 부대 지휘관에 보고됐고, 지난 9일에서야 A중사는 다른 부대로 파견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연이어 유사사건이 일어나면서 군 내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여전히 작동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피해사실이 즉각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점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A중사에게 상담 등 심리 지원 대신 '휴가를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하는 등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망사건의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제20전투비행단 소속 피해자 이모 중사는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지만 동료와 상관 등으로부터 회유

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본 끝에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 피해자가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

잘못은 가해자가 저질렀는데, 피해자는 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저버릴 수 밖에 없었을까? 공군과 해군 두 사건 모두에서 드는 강한 의문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로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지만 이번 두 사건의 경우는 환경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연정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까지는 한국은 남성위주다. 성폭행 관련 일이 일어나면, 가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실에 대해서 비난한다. 억울한 상황때문에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죽음을 이용해서라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특히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자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에 노출 되어 있을 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면서, "더욱 주변의 보호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연정 교수는 또 성폭력이나 악플, 학교폭력 등 환경적, 상황적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생긴 우울증과 이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 개선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선 시스템 변화가 제일 우선이겠지만, 사회적으로 정신과에 대한 편견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누군가 우울증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 이상하거나 싸이코적인 것이 아닌, 누구나 힘든 상황에 노출 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식개선과 국가적 의료보험 지원 등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를 몰고가는 것은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죽지 못해 살아가는 피해자들

"저는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살아 있을 뿐이에요."

BBC코리아가 만난 가정폭력 피해자 아라(가명)씨도 이번 사건을 뉴스에 접하면서 '피해자들의 심정을 100%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라씨는 자신이 이번 공군, 해군 피해자들과의 다른 점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한 점'이라고 했다.

아라씨가 미국인 남편을 가정내 성폭행, 가정폭력 혐의로 한국



지난달 22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보낸 조화가 놓여있다

경찰에 고소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부부간 성관계 도중 갑자기 난폭해지며 폭행을 일삼는 남편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시달리던 아라씨가 결혼 1여 년 만에 내린 결정이었다.

## '피해자'가 '가해자'로...2차 피해

"처음에 경찰에 신고하려 갔더니, '동영상 찍어 놓은 것 있느냐, 폭행이 있었을 당시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 결국 본인도 거세게 항의하지 않았으니 폭력적인 성관계에 동의한 것 아니냐, 부부간 있었던 일은 확인할 수 없다. 한국 법으로는 신고해 봤자 처벌하기 힘들다, 차라리 미군한테 맡겨라' 이래서 처음에는 포기했어요."

다시 마음을 먹고 변호사를 동행해 신고를 결심했을 때 아라씨가 경찰에게 받은 첫 질문은 "혹시 본인도 폭력적인 성관계를 즐기신 거 아니에요?"였다.

"수치스러움을 넘어서 웃음만 나왔어요. 성관계 도중에 피가 나고 멍이 들도록 맞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 "신고해도 소용없었어요"

아라씨가 피해자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나선 건 신고 후 1달이 지난 뒤였다. 세 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에서 아라씨는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실제로 BBC 코리아가 입수한 아라씨의 피해자 조사 현장 기록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들 수 있었다.

먼저 경찰은 피해자 신분보호가 필요한 아라씨에게 '이미 남편하고 별거 중이니 신분보호가 필요

하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이라며 신분보호 요청을 지양할 것을 권하는 발언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피해자가 남편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피가 날 때까지의 폭행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자 경찰은 "성폭행이라고 보기에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유는 '성관계는 합의로 한 것이고, 때리는 행위는 둘만의 취향이라 경찰이 관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아무리 제가 폭행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 멈춰 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말을 해도 '왜 더 거세게 저항을 하지 않았느냐, 어쨌든 계속 성관계를 하지 않았느냐, 그건 폭력적인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싫었으면 신고를 바로 하든지 아니면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경찰은 남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담당 조사관에게 무혐의에 대한 이유를 들은 아라씨는 그날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한다.

"남편이 저와 나는 문자 내용을 모두 제출했는데, 거기에 제가 '난 당신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게 좋아'라고 썼다며 경찰이 그러더라고 '좋다면서요, 저희는 증언만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없어요.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증거는 문자밖에 없으니까, 결과에 불만 있으면 검찰에 고소하세요. 더 제가 해드릴 건 없습니다."

남편은 한국 경찰의 '무혐의' 결과지를 들고 미군 CID 조사단에 재조사를 해 줄 것을 신청했다.

"제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미군에서도 조사결과가 남편에 대해 '무혐의'로 나온다면,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 들리지 않는 '아우성'

얼마 전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HRW) 에서 발표한 '내 삶은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 디지털 성범죄' 보고서에는 BBC 코리아가 인터뷰한 아라씨와 같은 38회의 성폭행 피해 생존자 이야기가 담겨있다.

HRW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설문 응답자는 "범죄 자체보다 경찰의 대응 방식 때문에 더 상처를 받는다"고 답했다며, 한국 사법 제도는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92쪽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 정부뿐 아니라 법률 개선,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 경찰과 검찰, 대법원 수사 방식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도 한국에서 폭력을 겪더라도 그것이 폭력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거나, 폭력인지 알아도 2차 폭력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

심지어 용기 내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2차 가해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논하지만, 더딘 변화 속에서 희생자는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

/BBC코리아

## 이기환의 | **조선을 구한 잔나비를 아시나요\_2**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 원숭이에게 나무 타는 법을 가르치다니

각종 문헌에 지긋지긋하게 등장하는 고사 중에 ‘원숭이에게 나무 오르는 것을 가르쳐주지 마라. 그것은 진흙 위에 진흙을 붙이는 격이다(毋教노升木 如塗塗附)’라는 <시경> 구절이 있다. 소인들에게 자꾸 나쁜 짓을 더 하라고 부추킨다는 뜻이다. 즉 원숭이는 소인이며, 나쁜 짓은 원숭이가 나무 오르는 행동을 가리킨다. 소인들을 꼬드겨 자꾸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더러운 진흙 위에 더러운 진흙을 바르는 격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1441년(세종 23년) 성균관 유생 유이 등이 맹렬한 기세로 상소문을 올린다. 세종이 불교사찰인 흥천사를 보수한 뒤 이를 경축하는 경찬회를 열고, 친형인 효령대군이 독실하게 믿고 있는 불교를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효령대군을 두고 생불(生佛)이니 뭐니 하고 숭상하니 남녀를 막론하고 너도나도 중이 되려고 합니다. 엄벌을 내려도 시원치 않은데 전하께서는 만백성의 대표로 불교를 숭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원숭이에게 나무 오르는 것을 가르치고, 더러운 진흙 위에 더러운 진흙을 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 원숭이는 쓸모없는 이물질

1477년(성종 8년) 유구국(류큐국·현 오키나와)에서 원숭이를 바치자 사복시(말 등 동물을 관리하던 관청)가 “원숭이에게 옷과 집을 마련해주자”고 임금에게 청했다. 그런데 좌부승지(대통령 비서관) 손비장이 득달같이 나서 “아니되옵니다”를 외쳤다. 원숭이는 상서롭지 못한 동물이라는 것이다.

“상서롭지 못한 동물에게 사람의 옷을 입힐 수는 없사옵니다.”

손비장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다. 조선 뿐 아니라 왕조시대에는 군주가 애완동물을 함부로 키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애완동물에 정신을 팔려 자칫 백성을 소홀히 할까봐 무척 경계했다. 손비장 역시 “원숭이에게 입힐 옷 한벌이라도 백성 한 사람이 추위에 얼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씨를 자극했다. 그러나 성종의 입장 또한 분명했다. 원숭이같은 짐승에게도 살 길은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과인이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류큐국)이 바친 동물을 추위에 얼어죽게 해서 되겠는가. 사복시가 청한 것은 사람의

옷이 아니라 그저 원숭이용 옷으로 녹비(사슴가죽옷)를 청한 것이다. 이것은 경이 잘못 들은 것이다.”

애완동물과 백성을 연결하려는 신하들의 마음씨도 가상하지만 원숭이에게도 살 공간과 옷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임금의 마음씨도 평가받아야 하지 않을까.

여하간에 류큐국 등에서 보낸 원숭이 진상품은 역대로 조선의 조정을 고민에 빠뜨렸다. 성종은 “잘못인줄 알면서도 원숭이 선물을 받았다”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왜인이 보낸 원숭이 선물을 받지말라”고 명했다. 연산군 시대에도 원숭이 선물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1502년(연산군 8년) 왜국에서 암원숭이를 바치자 연산군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동물을 받을 수 있겠느냐”면서도 “말(馬)은 받되 원숭이는 받지 말라”는 명을 내렸다.

“원숭이는 나라에 소용이 없고 기이한 물건이니 결코 받을 수 없지만 말은 전에도 바치는 경우가 있었다. 저(왜인)들이 굳이 받으라고 청한다면 (말은) 일단 받아두라.”

1599년(선조 32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선조가 명나라가 예물로 전한 원숭이를 ‘쓸모없는 이물질(異物質)’이라 표현하면서 되돌려 주었다. 1801년(순조 1년) 제주도 대정현 해안을 지나던 이양선이 뜬금없이 5명의 선원을 내려놓고 떠난 일이 <순조실록>에 기록돼 있는데, 이들을 ‘원숭이 형상’이라 표현했다.

“다섯명의 얼굴과 몸이 모두 겹어서 형상이 꼭 긴팔 원숭이 같았다. 왜가리가 시끄럽게 지절거리 는 것 같았고, 글씨는 난잡하기가 엉클어진 실 모양 같았다. 글씨는 왼쪽에서부터 횡서로 썼는데 글자 모양이 꼬부라져서 알 수가 없었다.”

대왕대비 정순왕후는 꼭 원숭이 같은 외국인 5명을 중국으로 보낼 것을 결정하면서 “대체 이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지 못하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 조삼모사와 단장

원숭이를 사람의 얼굴을 내세운 간악한 동물로 표현하며 손가락질 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다른 사람이다. 자신의 간악함과 어리석음을 자신과 닮은 원숭이에게 투영시킨 뒤 마음껏 손가락질하는 비겁한 동물이 바로 사람인 것이다.

예컨대 조삼모사(朝三暮四)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춘추전국시대

송나라 ‘사람인’ 저공(狙公)이다. 원숭이들에게 아침에 도토리 세 개 주고 저녁에 네 개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성내더니, 아침에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 주겠다고 하자 모두 기뻐하더라는 내용이 아닌가. 이것은 <장자> ‘제물론’에 나온다.

인간의 잔인함과 대조되는 원숭이의 ‘슬픈 반전의 매력’은 유명한 고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바로 단장(斷腸), 즉 단원장(斷猿腸)의 고사이다. 단장의 고사는 두가지 버전이 있다. 한가지 버전은 동진의 환온(312~373)이 346년 촉(蜀)을 정벌하려 양자강 중류 협곡(삼협·三峽)을 통과할 때 만들어졌다. 부하 한사람이 원숭이 새끼 한마리를 붙잡아 배에 실었다. 자기 새끼가 붙잡혀가는 꼴을 본 어미 원숭이가 강가에서 구슬피 울기 시작했다.

이윽고 배가 출발하자 어미 원숭이는 병풍처럼 펼쳐진 바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배를 쫓아왔다. 배가 100여리가 간 뒤 이윽고 강기슭에 닿자 어미 원숭이가 필사적으로 배에 올랐다. 그러나 힘이 빠진 어미원숭이는 그냥 죽고 말았다.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斷腸) 있었다.(<세설신어> ‘출면·黜免’)

또 하나의 버전은 같은 동진 시대의 설화모음집인 <수신기>에 나와있다.

“어떤 이가 산에서 원숭이 새끼를 잡아 집에 돌아왔다. 그러자 어미 원숭이가 그 사람의 뒤를 따라왔다. 그 사람이 새끼 원숭이를 틀안의 나무에다 묶어놓자 어미 원숭이가 그 사람을 향해 자기 뺨을 치며 애걸했다. 그 애처로운 광경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 사람이 새끼 원숭이를 놓아주지 않고 결국 때려죽이니, 어미 원숭이가 구슬피 울며 스스로 몸을 던져 죽었다. 어미 원숭이의 창자 꺼내 보니,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

이 두가지 버전의 ‘단원장(斷猿腸)’ 고사를 읽고 사람과 원숭이 중 누가 더 잔인한 동물인지 생각해보라.

### 조선을 구한 원숭이

원숭이는 나라를 구한 수호신이기도 했다. 이중환의 <택지리> ‘팔도총론·충청도편’을 보면 원숭이때가 누란의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담아 놓았다.

바로 명나라 지원군이 대첩을 거뒀다고 자부한 직산전투였다. 때



장승업의 ‘송하고승도(松下高僧圖)’. 소나무에 앉아 있는 노승에게 원숭이가 불경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바치는 장면이다.

는 바야흐로 정유재란이 일어난 1597년 9월7일이었다. 다시 조선을 침공한 왜적이 과족지세로 남원-전주-공주를 거쳐 북상하고 있었다. 명나라 장수 양호가 10만대군을 이끌고 평양에 당도했을 때 급보를 들었다. 명나라군은 서둘러 경기 평택까지 달려왔다. 소사교 아래에서 매복한 명나라군은 충청도 직산(천안)으로부터 수풀처럼 빼곡히 북상하는 왜적을 바라보며 신묘한 계책을 냈다. 구로다 나가 마사(黒田長政)가 이끄는 왜군이 100보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기다려 300마리로 구성된 원숭이(弄猿) 부대를 풀어넣은 것이다.

“원숭이들이 말에 올라 채찍질을 가하여 적진에 돌진했다. 왜적들은 사람같지만 사람이 아닌 원숭이를 보고는 어리둥절하여 진군을 멈추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원숭이들은 즉시 말에서 내려 진중으로 돌입했다. 왜적들이 원숭이들을 잡아 죽이려 했지만 몸을 요리조리 잘 피했다.”

이들 원숭이 부대가 전진을 해 집어넣은 덕분에 왜적의 전력은 흩어졌다. 이 틈을 이용해 명나라 철기병대가 적진을 짓밟았다. 왜적들은 조총과 화살을 제대로 쏘아보지도 못하고 크게 붕괴되어 후퇴했다. 왜적의 시체가 직산의 들판을 뒤덮었다. 택리지는 이 직산전투를 두고 “그 재빠른 지모와 절제의

공로는 이여송의 평양성 전투를 능가했다”고 평했다. 직산대첩의 일등공신은 뭐니뭐니해도 원숭이 부대였던 것이다.

1796년(정조 20년)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원숭이 부대를 전투에 투입한 명나라 장수 양호를 위한 제문을 지으면서 바로 이 원숭이 부대의 전공을 언급한다.

“조선을 살린 건(再造我東) 창서 양호공일네.(蒼嶼楊公)…소사에서 적 맞으니(迎敵素沙)…다리 밑서 철갑을 걸치고(浴甲橋下) 재빠른 원숭이 삼백기병(弄猿三百) 한꺼번에 말 채찍질(一時鞭馬)…말굽 아래 무질렀으니(悉躡蹄間)….”(<연암집>)

물론 <실록>과 같은 정사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다. 하지만 <연려실기술>은 임진왜란 때 원숭이가 어느 정도 활약했음을 보여주는 단서를 기록해놓았다.

즉 명나라군은 원숭이는 물론 소와 양, 돼지 등 갖가지 동물들을 데리고 왔다.

그런데 특히 원숭이들에게는 활과 화살을 차고 말을 타고서 앞에서 군대를 인도하게 했다는 것이다.

<연려실기술>은 “원숭이들은 적진에 들어가 말의 고삐를 풀어 적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고 기록했다.

/경향신문

# 아무도 눈치못챈 세종의 '숨겨진 업적'... '신의 한수' 될 줄이야



태백산사고 : 담장 안 왼쪽 건물이 실록각이고, 그 오른쪽은 선원보각이다. 담장 밖 큰 건물은 근천관이고 그 왼쪽 작은 건물(대문 뒤쪽건물)은 포쇄각으로 추정된다.

실물로 보이지 않았던 세종대왕 업적의 편린이 얼마전 서울 도심 공평동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속활자 '갑인자'는 물론, 종합 자동 물시계인 옥루(자격루)와 해시계·별시계 겸용인 일성정시의 등 세종이 심혈을 기울인 국책 사업의 결과물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숨겨진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 아십니까.

만약 세종의 이 업적이 없었다면 아마 고려·조선의 역사는 송두리째 사라졌을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 신의 한수가 된 '사고의 확충'

582년 전인 1439년(세종 21) 6월 26일로 되돌아가봅시다. 사헌부가 세종에게 '당상관의 선정과 감사의 천거, 관리의 제수, 승정원의 임무, 사고의 확충' 등 9가지 항목의 건의서를 올립니다.

그런데 세종은 그 중 딱 한가지만 '선택'합니다. 바로 역사서를 비롯한 각종 사료 및 중요 서적·문서를 보관하는 사고(史庫)의 확충이었습니다. 사헌부의 상소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의 사적(史籍)을 포함해서 전해지는 역사책이 적습니다. 여러 곳에 보관하지 못했고, 여러 차례 전란을 겪어 잃어버렸습니다. 역사책의 저장에 신경써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사고는 딱 2곳 설치되어 있었는데, 서울 춘추관과 충북 충주였는데, 이 중 (태조실록)과 (정종실록), (태종실록) 등이 보관된 곳은 충주 사고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충주 사고가 민가와 섞여있었다는 겁니다. 불이라도 나

면 끝장이었죠.

사헌부는 역사가 사마천(기원전 145?~기원전 86?)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사고의 확충을 건의합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편찬한 뒤 '명산에 간직하고 인쇄본은 서울에 둔다'고 했습니다. 사고를 확충해서 실록과 고려의 사적 및 경서, 제자서, 경제조장서 등을 반드시 각지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종은 다른 8가지 건의는 물리치고 유독 "사고의 확대 설치 건만 처리한 뒤에 과인에게 보고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경상도 성주와 전라도 전주 등 2곳에 새롭게 사고가 설치됩니다.

이러한 세종의 '선택'이 정확히 153년 뒤 '신의 한 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 외에 또 있습니다. 사고 신설 지역 중 전주에는 창업주인 태조 이성계(1392~1398)의 어진(초상화)을 모신 경기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1442년(세종 24) 경기전을 지키는 상주 관리(진전관·眞殿官) 2명을 배치합니다. 말하자면 능참봉(陵參奉)과 비슷한 전참봉(殿參奉)을 둔 건데요.

이 또한 세종의 선견지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 경기전 비상대책회의

그 자초지종을 풀어봅시다. 1592년(선조 25)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왜군은 파죽지세로 전국을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전주 경기전에도 비상이 걸립니다. 경기전 참봉 오희길(1556~1623)은 전라감사 이광(1541~1607), 전주부윤 권수 등과 함께 태조의 어진과 실록 등 역사

자료의 피란 대책을 논의합니다.

처음엔 마루 밑을 파고 실록 등을 묻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도에서 사로잡은 왜적에게서 성주 사고에서 약탈한 실록 두 장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희길은 다른 계책을 내놓습니다.

"다른 곳에 보관된 실록이 화를 입은게 분명하니 깊은 산 속으로 옮겨야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실록을 지키는 것이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설왕설래 끝에 실록을 숨길 피란처로 '내장산'이 낙점됩니다.

## 손들고 나선 무명의 선비들

전황은 급박해졌습니다. 6월 왜군이 금산까지 당도하자 전주는 풍전등화의 신세에 놓였습니다. 태조 어진과 실록 등을 책임지고 피란시킬 책임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전북 태인의 선비인 안의(1529~1596)와 손흥록(1537~1610)이 손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는 64살(안의)과 56살(손흥록)이었습니다. 당대의 기준으로는 노구를 이끌고 나선거죠.

6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실록 및 어진의 '이안' 작업에 나섭니다. 경기전에서 쓰인 각종 제기(祭器)와 <고려사>, 실록 등의 관리일지인 <형지안> 등까지 50여 바리에 달했습니다.

책수로 따지면 실록 830책, <고려사> 등 기타 전적이 538책 분량이었습니다. 7월 초에는 태조의 어진을 정성스럽게 옮깁니다. 가동 30여 명을 인솔하고 전주로 달려온 안의·손흥록은 실록과 어진의 이안(移安)을 위해 사재를 털었습니다.

실록과 어진은 처음에는 내장산 용굴암, 은적암, 비래암 등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계속 옮겼습니다. 은적암과 비래암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굴암은 지금도 철계단을 타고 가파른 벽을 올라야만 닿을 수 있는 천험(天險)의 장소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의·손흥록 두 사람은 1592년 6월22일부터 1593년 7월9일까지 1년 18일간 하루도 빠지지않고 숙직을 하면서 내장산에 숨긴 실록과 어진을 지켜냅니다.

실록·어진의 이안과 숙직 과정을 기록한 <임계기사>를 보죠. 안의와 손흥록 두 사람이 숙직한 날은 227일(안의)과 191일(손흥록)이었습니다. 숙직 첫날인 6월23일 일기를 볼까요.

'용굴암에서 (실록과 어진을) 지키기 시작했다. (在龍窟庵因留始直) 참봉 오희길과 유인은 모두 내려갔다. 안의·손흥록이 함께 숙직했다. (同直安孫)'

두 사람이 교대로 보초를 서는 동안 오희길과 유인, 구정려, 이도길, 좌랑 신희 등이 찾아와 숙직을 도왔습니다. 또 무사 김홍무, 내장산 영은사 주지인 승려 희묵, 그리고 근처 마을에서 사당패 100여 명이 밤낮으로 암자를 떠나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 "벼슬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님니다"

이들의 '어진 및 실록' 수호는 내장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1593년(선조 26) 6월 내장산의 소식을 들은 선조가 "행재소(전란 중 임금이 임시로 머물렀던 곳)로 어진 및 실록 등을 옮겨 오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때 손흥록·안의와 수북 한춘 등은 태조 어진과 실록을 모시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옮기는 비용을 누가 대졌을까요. 아님니다. 바로 두 사람이 사재를 털어 어진과 실록을 옮길 말과 식량을 마련했습니다.

선조는 두 사람에게 별제(장부를 관리하던 정·종 6품의 직책)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벼슬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다"라고 고사하면서 대신 '나라를 위한 6가지 중흥책'을 선조에게 올립니다.

요컨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데 조선 8도 중 전라도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도의 백성들이 굶어죽거나 떠돌고 있다, 이제 모든 전쟁물자 비용을 전라도에서 조달하고 있다, 이제 전라도 백성들도 괴로움을 견디지 못할 지경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무능한 임금 때문에 그나마 형편이 나은 전라도 백성까지도 '탈탈 털리게 됐다'고

임바른 소리를 한 겁니다. 두 분은 상소문을 올린 뒤 표표히 사라집니다.

## 세종이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돌이켜 보면 모골이 송연하죠.

세종대왕의 숨겨진 업적 중 첫 번째는 전주와 성주 등에 사고(史庫)를 확충한 거죠. 임진왜란 와중에 다른 3곳의 실록은 모두 불탔지만 전주사고의 실록은 화를 모면했습니다. 이 어찌 세종대왕의 음덕이 아니겠습니까. 천고에 빛날 세종의 업적이죠.

그러나 저는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물론 고려의 역사까지 지켜낸 민초들의 공을 가릴 수 없다는 거죠. 따져봅시다.

4대 사고(史庫) 중 임진왜란 직전까지 남아있던 춘추관과 성주사고, 충주사고의 실록은 모두 소실됩니다. 실록 등을 모두 피란한 전주사고마저도 정유재란 때인 1597년 소실됩니다.

만약 임란 초기에 전주사고의 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어찌되었을까요.

태조 이성계부터(1392년) 명종 때까지(1567년)의 175년의 조선 역사는 공백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뿐만이요, 조선의 건국 상황은 물론 만고의 성군인 세종의 치세도 그저 전설로 남았겠죠.

더 있습니다.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같은 고려의 역사마저도 사라졌을 겁니다.

/경향신문



**한국**  
**개나리**  
**벽지**

**공장**  
**물류센터**  
**입대**

문의: 8(777)400 3199(kor)  
8(701)646 6695(rus)

## 알짜배기 유머 시리즈

## 사춘기 부부\_2(#12)

토요일 한가한 대낮부터 강의가 없는 신혼부부는 부산했다. '술 달라', '돼지고기 달라', '김치 떨어졌다' 하면서 친구들은 아우성을 쳤다.

미자는 음식이 맛이 있을까 하는 걱정 보다는 살림을 거덜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벌써 예상했던 이상을 초과하고 있었다. 그것도 지금 겨우 여학생들 한팀 처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와 - 이젠 정말이지 알려지들 이 달려 들고 있는 것이었다. 미자는 축하한다는 술잔을 받아 넘죽 - 살림이 거덜 날까봐 걱정이 되 술잔을 받아 넘죽. 참 넘죽 넘죽 잘도 받아 마셨다.

그러다 보니 미자는 흥에 겨워 걱정은 사라지고 많이 먹어주고 많이 떠들어 주는데 신이 나기 시작했다.

장난끼 있는 여학생들이 구석에 처박아 놓은 묵은 빨래를 어떻게 찾아 냈는지 신랑 신부의 팬티를 휘두르며 깔깔 대고 있었다.

"애.. 애들이 이것 좀봐 ~ 신랑 팬티가 뺑구 났어.. 히히..."

"어머.. 어머.. 세상에 어느 부분이 뺑구 났는데."

다행히도 민철은 부엌에서 음식들을 내 놓느라 그런 광경을 보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보았다라도 그 질탕한 분위기를 깰 용기는 없었으리라..

다섯시가 되어서 신부 친구들은 썰물처럼 쭉 빠져 나가고 이제는 신랑 친구들이 몰려 들어 왔다.

한사코 가지 않겠다는 친구들을 억지로 밀다시 피해서 교체되었던 것이다.

음탕한것이 여자라면 노골적인 것이 남자가 아닌가? ... 각자 선물을 하나씩 사왔는데 여자가 커피그릇 세트라든가 생활용품을 사온데 비해 남자들은 장난끼가 심해 가지각색의 팬티 세트와 고무 풍선 같은 것을 사와 가지고 받는 입장의 민철이 풀어 보기도 전에 지내들이 먼저 개봉을 하고 야한 농담과 더불어 어거지로 그것을 입고 그들 앞에서 패션 쇼를 해야만했다.

신부 미자도 구지 해야 된다고 친구들은 우겨댔지만 어디그렇게 가냘픈 팬티조각을 입고 그들 앞에 설 수가 있는가 말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미자는 자진해서 모델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친구들은 제각기 굴러온 떡이나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미자가 갈아 입고 들어 오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었다.

잠시 후에 미자가 그모습 장엄하고 요염하게 친구들 앞에 섰다.

"짠 ~"

"우 - 와 ~하 ~"

"기가 막히다. 끼끼끼.."

"에이... 근데 바지위에 입고 있으면 무슨 재미냐?"

미자는 그렇게 해서 친구들에게 가장 재미 있는 시간을 제공 해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녀석들이 진짜로 집 대들보를 뽑아 가려는지 계속해서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술... 술... 하면서 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였다.

"자 - 제수씨.. 일루 와서 한잔 해야지?"

말하는 녀석은 미자를 마치 술집작부로 여기는 듯 손을 잡고 끌어 당기고 있었다. 미자는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 나기도 해서 또 따라 주는 잔을 실세 없이 마셔대고 있었다.

좁은 방에서 담배를 뿜뿜 피워 대면서 열기가 달아올랐다. 민철은 미자가 음식을 만드는 대신에 신부님은 전부 도맡아 하기로 했던 지라 엉덩이를 붙일 틈이 없이 대문을 들락 거리고 있었다.

미자는 장난끼섞이 녀석들의 술주정을 어거지로 참아 내고 있었다. 민철도 이제는 어느새 권한 술에 취해 엉덩이를 방바닥에 짓누르고 앉아 흥에 겨워 하고 있었다.

"난, 난 말이야.. 여기 이 여자... 아니지.. 내마-누라가 예-전엔 여자 인지는 정말 몰-랐다. 하-기사 ~ 그걸 확인 하-기 위해서 ~ 끄으 ~ 우리는 그-게 잘못 땀-땀-거야... 너희들! 너희들은 곁-흥 ~ 하지 말-어~ 사랑 ~ 맨들기-? 헛.. 후 ~ ---"

미자는 민철의 말을 들으며 훌쩍훌쩍 술잔을 비웠다. 이상하리만큼 민철이 먼저 취해 있으니 어떤 의무감에선지 술기운이 오르질 않고 있었다.

겨우 12시가 막 넘어서고 대식이가 이끌고 친구들이 전부 빠져 나갔다.

민철은 너무 취해 친구들을 배웅하지 못하고 방바닥에 누워 후-후- 거리고 있었고 미자도 좀 취하긴 했지만 간신히 대문 밖까지 친구들을 배웅할 수 있었다.

미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방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민철이 술에 취해 발로 술상을 뒤엎은 것이었다. /subkorea

## 단시간에 건강을 변화시키는 '강력 식품' 7가지



운동과 정신 건강은 사람의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적절한 식사 없이는 건강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음식은 사람의 뇌와 소화기관, 혈액, 심장, 면역체계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에 메시지를 전달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이 생산해내는 것이 된다. 건강 정보 사이트 '원그린플래닛'가 단기간에 건강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식품 7가지를 소개했다.

## ◆케일

마그네슘과 철분, 비타민B군, 엽록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케일은 시금치에 비해 단백질과 비타민 함유량이 약간 낮지만 시금치와 비슷한 채소다. 항산화제와 섬유질은 시금치보다 더 많아 항암, 항염증 효능이 탁월하다.

## ◆시금치

이 잎채소는 눈 건강과 기분을 향상시키고 체내 수소이온농도(pH)를 건강하게 조절한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루테인은 시력을 향상시키고 백내장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E는 피부를 젊게 하고, 비타민B와 마그네슘, 단백질은 신경전달물질의 기능을 증강시킨다. 여기에 시금치는 최고의 알칼리성 식품 중 하나로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으며 비타민C도 어떤 과일보다 많이 포함하고 있다. 철분과 엽산도 들어있어 사람의 활기를 북돋운다.

## ◆아몬드

아몬드는 체중과 기분, 심장, 뼈, 신경계, 그리고 소화 건강에까지 두루 유익한 견과류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 4분의 1 컵 당 7g이 들어있다. 비타민B군과 마그네슘, 칼륨이 들어있어 기분과 혈당 수치 조절에 효능이 있다.

또 칼슘도 함유돼 있어 뼈 건강을 증강시키고 비오틴 성분은

두발과 피부, 손톱에 좋다. 단일 불포화지방이 풍부해 간식으로 적당히 섭취하면 포만감을 느끼게 해 살을 빼는데도 도움이 된다.

## ◆호두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 단일 불포화지방, 망간 등이 들어있다. 탄수화물 함유량이 낮고 전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호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심장병, 당뇨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못지않은 건강 효능을 갖고 있다. 콜리플라워는 채소 중에서 비타민B군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정신 건강에 좋다. 또 암 위험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은 비타민C와 항산화제도 풍부하다.

## ◆양파

케르세틴이라는 암 위험을 줄여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다. 이 성분은 알레르기도 감소시킨다. 양파는 소화기관에 좋은 박테리아를 자라게 하고 간 건강을 향상시키는 프리바이오틱스(생균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혈압을 낮추고 과도한 수분 저류 현상을 없애는 칼륨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양파는 풍미가 좋아 소금이나 설탕, 중독성이 있는 첨가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양파의 특 쓰는 맛은 당분 섭취 욕구를 감소시키고 함유된 비타민B군은 뇌와 대사 건강을 향상시킨다.

## ◆고구마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이 들어있다. 비타민B군과 마그네슘, 비타민C,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백미와 흰 감자 대신 고구마를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고 피부가 개선된다. 고구마의 단맛은 가공된 설탕이나 정제 전분을 건강하게 대체할 수 있다.

/코메디닷컴



# 가상화폐 사기범들이 법망을 피하는 새로운 꼼수

## "돈을 따라갈 것".

이는 범죄자를 색출하는 수사관들이 대대로 써온 구호다.

사이버 영역에서 범죄자들과 수사당국 간의 싸움은 수 년 동안 격렬하게 전개돼 왔다.

가상화폐의 익명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사이버 범죄자들 수십 명이 적발됐다. 디지털 지갑 간의 모든 거래내역이 기록된 블록체인의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 덕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역전될 수 있을까?

범죄자들의 디지털 코인이 얼마나 "깨끗한지" 확인해주는 새로운 서비스가 다크넷에서 개시됐다.

가상화폐 분석업체 엘립틱의 수석 과학자 겸 설립자인 톰 로빈슨 박사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최초로 발견했다. 그는 "범죄자들이 블록체인 분석에 대항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이를 위한 최초의 관련 서비스"라고 말했다.

로빈슨 박사는 "이는 '안티애널리틱스'라고 불리는 서비스로, 범죄자들은 이제 3달러(약 3480원)만 내면 자신들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수사기관이 문제를 삼을 만한 범죄행위와의 연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엘립틱은 이를 통해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가 얼마나 정교해지고 있으며 범죄자들이 체포를 얼마나 우려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로빈슨 박사는 "이는 매우 값어치 있는 기술"이라며 "자금이 오염되면 더 많이 세탁할 수 있고, 깨끗한 코인이 나올 때까지 범죄 행위와의 연관성 제거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우려스러운 새 트렌드가 가상화폐 분석과 사법당국의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진은 다행히도 이 새로운 서비스가 아직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로빈슨 박사는 "이 서비스는 실제 범죄 사이트와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별로 탁월하지 않았다"면서도 "성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 개선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향후 범죄자들과 돈세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능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등 각국 정부들은 점점 심각해지는 가상화폐 자금세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 자금추적 기술 덕분에 세간을 떠돌썩하게 한 범죄인 몇몇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 중엔 역대 최대 소셜미디어 해킹을 주도한 혐의로 수감 중인 미국의 10대 그레이엄 이만 클라크도 있다.

클라크는 방송인 킴 카다시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유명인사 수십 명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했다.

이후 클라크와 그의 해커 팀은 해킹한 유명인들의 계정에 '1000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30분 안에 돈을 두배로 돌려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비트코인을 가로챘다.

몇 시간 만에 수백 건의 이체를 통해 클라크는 1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 그는 돈의 행적을 숨기기 위해 자금을 이리저리 옮기



ERS

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미국 법무부는 클라크의 사건 기록부에서 수사관들이 해커들의 "블록체인을 분석하고 비트코인 거래를 비익명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재 18세인 클라크는 유죄를 인정했고 플로리다주의 한 교도소에서 3년의 복역 기간을 채우고 있다.

## 프라이버시 코인 증가

수사당국이 우려하는 또다른 새로운 트렌드는 '프라이버시 코인(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해 암호화폐 거래 내역 정보를 비공개하는 코인)'의 사용 증가다. 이들은 모네로, 리플과 같은 가상화폐로 비트코인 같은 주류 코인보다 익명성이 강하다.

일부 가상화폐 강탈 사건에서

해커들은 피해자들에게 할인을 해주는 대신 프라이버시 코인 지불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트렌드는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 가상화폐 분석기업 체인애널리틱스의 킴 그라우어 리서치 국장은 범죄자들이 이를 사용하는 데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라우어 국장은 "프라이버시 코인은 아직 기대 만큼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처럼 유동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는 상품과 서비스를 매매하거나 주류 화폐로 현금화할 수 있을 때에만 유용한데, 이러한 행위는 프라이버시 코인 사용 시 훨씬 어렵다"고 분석했다.

/BBC코리아

**GOLDEN TOUR**  
KAZAKHSTAN

사무실 이전

## 골든투어 카자흐스탄

Since 1998

- 한국 비자 접수 대행
- 항공권 예약 및 발권
- 한국 의료 투어 상담 환영
- 현지 투어 가이드 진행
- 그룹 및 개인 한국 투어 상담
- 누르타우 골프장 쿠폰 판매

귀백줄리 76번지  
 8(701) 711 4894(한)  
 8(701) 368 0100(러)

## 미국 안과학회 '선글라스 주의보'

미국 안과학회(AAO)는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을 맞아 '선글라스 주의보'를 내렸다.

AAO 임상대변인 다이애나 셀덤리지(Dianna Seldomridge) 박사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보도 자료를 내고 "100% 자외선(UV) 차단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국 건강매체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다.

셀덤리지 박사는 "눈 보호에 관한 한, 모든 선글라스가 다 똑같지 않다"며 "선글라스를 패션 아이템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나, 스타일보다는 태양광선으로부터 눈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선글라스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AAO에 따르면 태양에 대한 노출은 백내장 및 일부 안암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게 쉽고, 돈이 썩 많이 들지 않아 다행이다. 100%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만 찾으면 되기 때문이다.

셀덤리지 박사는 그러한 유형의 차단은 선글라스의 값이나 브랜드 이름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100% UV-A 및 UV-B 또는 UV400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구입하면 되며, 선글라스에 적절한 차단 기능이 있는지 불확실한 경우엔 안경점에서 광도계로 선글라스의 자외선 안전성을 테스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렌즈가 큰 선글라스는 차단 기

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다. 광각 안경(랩어라운드 안경)은 측면에서 들어오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안구 건조를 일으킬 수 있는 바람 및 증발, 눈을 자극할 수 있는 모래·먼지 등 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해 준다.

값이 비싸다고 해서 자외선을 잘 차단하는 게 결코 아니다. 또 더 어두운 렌즈나 편광 렌즈가 태양 복사열을 더 많이 차단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편광렌즈는 반사광의 빛을 차단해 눈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운전이나 수상 스포츠 등 활동을 더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다.

컬러도 썩 중요하지 않다. 선택은 개인의 선호일 따름이다.

/코메디닷컴



## 이모네 게스트 하우스 · 한정식당

- 단체(50, 10, 8인석 등), 비즈니스룸 완비
- 한정식, 중식 런치
- 김치, 깍두기 등 산업체 납품 가능한 시설: 반찬 사전 주문 가능
- 게스트 하우스(유학생 장기 투숙 환영)

**위치:**  
카작빌  
미시날리예바

**+7 727 299 1147 / +7 707 494 6190**

### 직영 농장 운영

(식자재 납품 가능)

### 신선채소

### 반찬류

### 김치류 공급

SINCE 1990 **다양한 좋은 세상 두레**

**Du-Re Mart** "배달가능"

한국식품과 공산품 일체, 각종 떡과 신선육 (도/소매 상담 환영)

• 넉넉한 주차공간, 고전 인테리어와 미로식 쇼핑동선, 항상 정감 있는 그곳!!

• 각종 떡, 신선육, 한국식품과 공산품 일체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9시(주일은 쉽니다)**  
**주소: 알파라비 자마카예바 24**  
**263-2291 / 8(771)852-6914**

카자흐스탄총판

## 7(세븐) Mart

\*주일은 쉽니다(2019년부터)

면류

장류

식품  
(냉동포함)

**생활 · 주방용품 · 기타**  
 아흐메토바 1번지(간도사바-사이나)  
 8(727)263 9969 · 8(701)907 4639 · 8(701)204 3488

# navien

ЭКСКЛЮЗИВНЫЙ ДИСТРИБЬЮТОР  
 ПРОИЗВОДИТЕЛЬ КОТЛОВ №1 в Корее  
 КОТЛЫ ОТОПЛЕНИЯ от 100кв.м² до 4000кв.м²

**ГАРАНТИЯ КАЧЕСТВО СЕРВИС**  
 Отдел продаж: 050019, РК, Алматы, ул. Чаплина (ул. ул. Халиуллина), д.71/66  
 Тел.: 8 (727) 234-42-87, 243-69-83  
 Mob.: 8-775-891-17-15  
 silo\_energy@mail.ru

Отдел продаж: 050083, РК, Алматы мкр. Жетысу-1, д. 47  
 Тел.: 8 (727) 376-82-75, 376-81-45  
 Mob.: 8-775-890-71-78  
 navien.kz

Заявки по сервису принимаются по единому номеру:  
 Сервисный центр по ремонту и установке на гарантию NAVIEN в Алматы: 8 800 070 02 22  
 звонок БЕСПЛАТНЫЙ с городского и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 한솔한의원

- ☑ 도침, 봉독, 사혈 및 물리치료
- ☑ 한약 및 보약탕전 처방
- ☑ 다이어트 한약 (식욕억제)
- ☑ 마사지 (15분, 30분, 60분, 90분)

한의원 번호:  
+7 (700) 515 70 40  
+7 (727) 293 07 40

주소:  
잠블라 135  
(잠블라-무랏바에바)

택시 이용시  
'목적지'에  
**hansol** 입력

이재원 원장 약력  
 경희대학교 한의대 졸업, 차의과학대학교 통합의학과 석사.  
 미국한의사 면허 소지. 전 인천 해광한의원 원장.  
 홈페이지: www.hansolmed.kz

진료: 월-금 8:00-18:00, 토 8:00-13:00 (점심시간 12:00-13:00)

## Kixx

Korean No.1 Lubricants!  
High Quality and Reliable Products

## 엔진오일 교환점

8(705)573 7229(한국어)

엔진오일 / 미션오일 / 부동액 / 브레이크액 교환

#1 교환샵 / 잔도사바  
317-3370(러시아어)

#2 교환샵 / 따스닥  
+7 727 317 3525  
메르겐, 알레그

#1 교환샵 #2 교환샵  
잔도사바 따스닥  
스마트폰 어플로 위  
QR 코드를 스캔하면  
2GIS에서 위치 확인 가능

교민할인

#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중앙아시아 허브교회

8(701)373-8821

## 알마티한인교회

새벽기도회 ▶ 화~토(06:00)

주일대예배 ▶ 12:30

어린이부예배 ▶ 12:30

청소년/청년부 ▶ 14:00

+77757054416  
(김광선)  
카톡: akckskim

## 법무 · 회계법인

- 회계 및 세무
  - 회계 가장 자문 및 대행
  - 회계 세무 실사
  - 통관 업무 대행
  - 내부 감사 업무 대행
- 기업 법무 자문 & 컨설팅
  - 현지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 설립 및 청산 업무 대행
  - 현지 법인 법률 실사/ 법률 자문
  - 중재 및 소송 수행
  - 인허가 자문 및 대행 / 건설면허, 외국인 취업 허가 등 /
  - 영주권 신청에 대한 상담

주소: 바겐바이 바투라 150 (Богенбай батыра 150)  
 '카담 인베스트' 비즈니스 센터 6층, 6,7호  
 8(727) 292 0018 · 8(727) 292 0028 · Kim Oleg 8(771) 300 2171  
 E-mail: cisgroupkim@gmail.com, olegkk@mail.ru

## 알마티 토요일 한글학교 2021년 2학기 개학 공지

- 2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알마티 토요일한글학교는
- 한국 교과 과정에 따른 국어(논술), 수학, 사회(역사) 등 필수 과목 학습으로 교민 자녀들의 실력 향상을 돕습니다.
  - 한국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한 정서의 안정과 리더십 개발을 돕습니다.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 정, 의 영역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돕습니다.

### 〈공지 사항〉

1. 등록 및 교과서 배부: 2021년 8월 25일(수), 오전 10시~12시
2. 등록 장소: 알마티 한국교육원 내 토요일한글학교 마당
3. 개학일: 2021년 8월 28일(토), 오전 10시
4. 수업 형태: 비대면 & 대면(코로나 상황 호전에 따라 변동됨)
5. 학기 일정: 2021년 8월 28일(토)~ 12월 11일(토), 16주간
6. 수업료: 70,000 텡게
7. 사전 등록: 알마티 이외의 지역 학생들은 교과서 발송의 시간을 고려해서 8월 17일까지 등록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 \*타지역 학생 등록 가능 학급 : 3학년, 6학년, 중등반

### 8. 수업 내용

유치반 (7세반)	한글, 기초 셈, 노래, 미술, 놀이, 동화 읽기, 체육
다문화 유치반 (다문화 가정의 자녀)	한글 기초, 말하기, 읽기, 미술
초등 1 ~ 2학년	국어, 수학
초등 3 ~ 4학년	국어, 수학, 사회
초등 5 ~ 6학년	국어, 사회 (역사)
중등 1 ~ 2학년	논술, 역사

### 9. 수업 시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10:00~10:40	10:50~11:30	11:40~12:10	12:20~13:00

### 10. 연락처

김영주 교장	+7 775 114 5460
유명임 교감	+7 771 490 0180 (카스피 카드를 이용한 수업료 이체가 가능한 번호임)

# 2021 하반기 카자흐스탄 해외 판촉사업 공고문

aT 카자흐스탄사무소에서는 한국식품의 신규시장 개척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2021 하반기 해외 판촉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바이어 및 유통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목적**
  - 카자흐스탄 소비자 대상 판촉 지원을 통한 한국농식품 수출 및 입점 확대
  - 포스트코로나 대비 다양한 비대면 플랫폼 판촉을 지원하여 수출 활력 제고
- 2. 지원대상**
  - 한국식품 바이어, 유통업체(소매 유통업체인 경우 한국식품 전문 판매점이며 5개매장 이상 동시판촉 가능업체, 다수업체가 컨소시엄 신청시 대표사 명의 신청)
  - 행사기간 : '21. 8월 ~ 11월
- 3. 지원품목(한국농식품 전반)**
  - 수출 증가세에 있거나, 판촉지원을 통한 수요확대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 \* 수산가공식품 제외
  - 카자흐스탄 신규진출 및 한국식품 시장다변화를 위하여 판촉지원이 필요한 농식품
- 4. 지원사항**
  - 유통채널 판촉마케팅 관련비용 지원 (임차, 장치, 홍보 및 시식행사비 등)
    - (1) 임차·장치·입점 :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임차 및 설치비용 등
    - (2) 홍보 : 판촉행사 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매체 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제작, SNS홍보, 온라인 시식체험, 증정품·경품행사, 포인트·쿠폰행사, 식품중개인 기획·입점 관련 비용 등
      - \* 증정품·경품·포인트·쿠폰 등은 합산하여 배정예산의 20% 한도
    - (3) 시식행사 : 판촉요원 고용비, 시식 식품비 및 관련 소모품비 등
      - \* 시식용 식품 비용은 배정예산의 10% 한도



###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지면 상황으로 일부 내용만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지원비용, 신청 안내, 지원신청서 등 보다 자세한 안내는 원래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CES GLOBAL LLP

## 현대 중고 중장비 판매/수리/임대



- 현대 중고부품판매
- 각종 유압호스 제작판매

+7(778)845 5676(공장장) • www.hces.kz • info@hces.kz

# Hannah E-Children Center

한나 영어 어린이 집 ; 내 아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곳

대상연령: 30개월~취학 전 어린이

### 어린이 집 교육프로그램

- 한국 어린이집 정규 교육과정 중심
- 영어교육
- 몬테소리 교육
- 생태 교육

### 토요 STEAM 융합프로그램

- 코딩
- 로봇교육
- 로봇코딩 등



### 초등등

- 화, 목 학습중심 방과후반 (국어, 수학, 논술, 주산암산 창의과학, 보드게임, 영재놀이)

• 교육 시간: 정규반 9시-3시/ 주말반 9시-5시 (개별 피아노, 유아체육, 발레 등) •

교육상담: 8707 700 8743(대표전화), 8705 710 7786 / 찾아오시는 길: 미끄라이온 쉬콜닉2 (두복2열, 살라피나 야사위 부근)

## 한식당

대형방켓 룸원비  
모든 메뉴 배달 가능  
편안한 주차공간  
한국에서 가져온 한우와 해산물

한국공산품 판매  
각종 반찬과 식료품 판매  
위생적인 육류제품 판매

## 한국마트

274-0487  
8(777)012 7776  
잔도사바 27a

# 다사랑

늘푸른건강원 8(701)392 8880

## 방울토마토미용실

커트·퍼머·염색·메이크업  
얼굴&전신 마사지·피부관리·타투

예약 필수  
일요일  
영업  
합니다

주소: 마나사 57번지  
8(701)335 3362/8(771)444 6641

## 알마티 부동산

▶ 아파트, 주택, 상가, 사무실 임대/매매 ◀

연락처: 8-701-063-3933 (KO)  
8-700-313-2396 (RU)

카톡 ID: Almatybds, 알마티부동산  
email: almatybds@gmail.com

## 스키(SKI) 동호회

스키/보드를 사랑하는  
교민, 유학생을 위한 모임

>> 침블락, 악블락 시즌모임 진행  
>> 초급자도 참여 가능  
>> 초/중급 무료 포인트 강습(비용없음)

문의: +7(702)908 0266 http://cafe.daum.kazakski

## 카자흐스탄알마티다구동호회

매월 3째주 당구대회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에게 문의해주세요.

연락처: 회장 최영석 8701-012-0008 총무 윤평식 87082225119

## 카자흐스탄 한인 축구 동우회

축구를 즐기고 FC KiK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Enjoy Football! Like FC KiK!!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5시, 웨브첸까-자르카바(Olza Sports)  
+7 701 744 3633(오영교 회장) +7 701 784 9776(김선웅 총무)

## 천산 산악회 토요일 정기산행

집결시간: 매주 토요일 9시  
집결장소: 리츠 플라스 주차장  
산행장소: 천산 임대  
참석대상: 산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  
문의: +7 778 200 30000

## 농구동호회

일요일  
오후 2시

농구를 좋아하는 모든분 환영!  
★실력은 집에 두고 열정만 가져오세요!★

대표: 박현기 +7775 257 2266 도움: 김상호 +7775 385 5062  
팀닥터: 이재원 원장 +7708 298 9258

## 카자흐스탄 다문화 가정 모임

- 카즈 다모 -

카자흐스탄 거주 다문화 가정의 소통과  
나눔에 관심있는 가정을 환영합니다.

진재정 회장: 8 701 711 4894 / 이경원 총무: 8 702 462 0089

## 스터디그룹

자기개발 학습동호회 "콩카루"

콩카루(Kor, Eng, Kaz, Rus)스터디그룹은 어학중심 자기개발 학습동호회입니다.

영성강의 시청, 공동학습, 학습자료 공유, 자율학습 | 카톡ID: 35151234 전화: 778-200-3000

**한식전문식당**  
8(727)269 6866  
숯불구이 전문/일요일 영업

**게스트 하우스**  
1인1실·사전예약필수

**장기 투숙시 할인 적용**  
+7 7013319158

**마트(MARKET)**  
8(727)269 6851  
생필품·식재료·공산품

Korean Restaurant  
**명가**

**모든 메뉴와  
치킨 배달 가능**

- 음식 주문시 마트물품 같이 배달 됨
- 배달비용: 1,000팅게
- 배달요청: 8(701)331 9158



구글지도에서 명가 한식당 또는 2GIS에서 Myeong Ga 를 검색하세요

baganashil@hotmail.com



# 애플렌터카

내차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드라이브를 위한 곳

**최고의 서비스**  
**차별화된 시스템**  
**고객 맞춤 감동서비스**



**렌트 및 상담전화**

+7 727 393 2580(RU) • +7 701 111 3567  
+7 701 484 0267 • +7 777 686 9025

## “교민 안전 간담회” 관련 논의 내용 [코로나 관련 대처 방안 중점 논의]

7월 26일 월요일 “교민 안전 간담회”가 명가에서 김흥수 총영사 주재로 열렸습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1. 현 코로나시국에 대비하여 교민의 코로나 발병시 위기대처 프로토콜 구축.

환자 발병시: 연락처 확인 기초 생필품 전달.

환자가 증상이 심할시: 동산병원 협력하에 환자와 통화하여 환자의 병증 확인

중증인 경우에는 총영사관 공조해 상태 확인 후 병원 및 앰블런스(103) 연락.

응급시: 선교사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소마스크(2대) 활용 및 의료물품 및 비상약 전달가능.

환자가 발생시 최우선으로 **한인회(8-747-674-58-00)**와 **총영사관 비상 연락처(8-777-705-6634)**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 상담을 원할 경우:

**한솔 한의원 이재원 원장(8-708-298-9258)**

**Dr.Nature 강정선 원장(8-778-008-6888)**

### 2. 지진대비 한인 비상 연락망 구축

- 지진발생시 교민들의 안전을 위한 위치 확인 및 대피소 설정.

- 카자흐스탄 중요 협회와 모임- 총영사관, 한인회, 지상사, 중소기업 연합회, 선교사 협회.

- 위 협회의 공조하에 비상 연락망 구축

## Masisso 카페강남

관광, 예술, 문화의 중심지 아르BAT 거리에 있는  
마시소 카페강남은 연회 및 각종 행사가 가능하며  
시원한 야외 Terrace와 Garden에서도 한식, 고려인식,  
중식, 양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영업시간: 10AM~02AM

주소: 쥐백졸리 102a (Жибек Жолы 102ф)

전화: 8-778-348-9666(Ru), 8-778-333-3701(한)

## Masisso 나자로바예바

한국식 인테리어(VIP Room), 정갈한 음식, 저렴한 가격  
☞ 추천메뉴: 삼겹살 또는 쇠고기 세트메뉴, 보신탕

영업시간: 12AM~24PM

주소: 나자로바예바 57 / пр. Назарбаева 57

전화: +7-727-273-2457

## Masisso 시폴리나

깔끔한 인테리어로 새롭게 오픈한 마시소 시폴리나  
넓은 주차장과 10인 단체석 준비완료

영업시간: 11AM~24PM

주소: 시폴리나 183a / ул. Сейфуллина 183a

전화: +7-727-294-4056

## 아티라우시 중심가에 한식당운영하실분 찾습니다.

- \*건물은 신 증축하였음
- \*1층: Dining hall -127m2/  
부엌-92m2/ 입구및 남녀화장실-10.4m2
- \*2층: Barman Area-80m2/ Dining Area-139m2/  
Open Terrace-18m2
- \*외국인 밀집지역
- \*장기 임차인 구함
- \*연락처: +7 701 712 9442 (김부장)

## 아래내용으로 MOTORTOOL에서 현지인 직원 구합니다.

일반 관리 및 영업직  
한국어 가능/ 컴퓨터(오피스프로그램) 중급수준  
나이, 성별제한 없음  
이력서 제출 및 면접  
연락처: +7 700 577 7138/ duk9172@gmail.com